

□ 성명서 □

## KBS의 몰지각 방송보도 짝태, 소가 웃을 일!

- 오는 5.22일 농민들의 분노가 KBS로 향할 것임을 경고한다 -

1.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 5.13일 KBS 시사기획 짝, '광우병 民心 어디로 가나?' 방송보도로 가뜩이나 시름에 젖어있는 우리 농민들은 깊은 상처와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의 정론보도는 고사하고 짜맞추기식 기획보도를 과감히 내보냄으로써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성난 민심을 영똥하게도 국내 쇠고기 등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로 전가시키는 작태를 보여주었다.
2. 현재 우리나라는 광우병 청정국가일 뿐만 아니라 동물성사료로 문제되고 있는 육골분사료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 사료로 이용하고 있는 양 의혹을 부풀려 우리나라를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아니 공영방송 KBS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방송한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3. 금번 쇠고기 사태의 본질은 미국산 광우병 문제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들은 국내 축산물 소비마저 위축되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일 방송에서는 이러한 본질은 외면한 채 우리나라도 현재 미국처럼 육골분사료를 사용중이며, 아직 광우병이 확인되지 않은 나라로 단정지어 버림으로써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공영방송이 되고 말았다. 가히 기가 막힐 일이다.
4. 아무리 곱씹어보고 백번 양보해 봐도 공영방송 KBS가 이런 놀랍고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대체 이로 인한 파문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축산농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런 얼토당토아니한 방송보도는 스스로 공영방송이 아님을 포기선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5.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오는 22일 쇠고기 협상 무효 투쟁 및 한·미 FTA 비준반대를 위한 전국 농민대회에서 극에 달한 농민들의 분노는 KBS로 향할 것이며, 무책임한 관심끌기식, 몰타기식 한탕주의 보도행태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보여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5.16

농민연합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성명서 □

### 장관고시 '수순밟기용' 축산대책 설명회 전면 거부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농식품부가 언론을 통해 미산 쇠고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요식행위로 축산단체와 면담을 갖고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는 수순밟기에 지나지 않는 축산대책 설명회를 전면 거부하고,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장관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밖에 없음을 우선 밝힌다. 이것이 소위 정부가 말하는 '소통'의 방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축산농민은 바보가 아니다. 미산 쇠고기 문제의 본질은 검역권과 안전성의 문제이다. 검역주권을 찾아왔다고 하는 데 그 내용은 소도 웃을 정도다. '국민에게 해롭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애매한 해석은 물론이고, 국제수역사무국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다. 또한 미국 도축장 승인권이나 취소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검역주권은 말뿐인 것이다.

더군다나 안전성의 핵심인 30개월 연령제한 철폐, SRM부위 허용문제 등 독소조항은 손도 못 댔다. 28개월령 소의 척수에서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됐고 광우병이 발생한 소의 99.9%가 30개월령 이상이라는 점은 감안한다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헌데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문제를 왜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현재 미산 쇠고기 안전성의 문제는 국내 축산물 소비위축이라는 2차 피해를 낳고 있다. 이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사료값 폭등으로 아사직전에 있는 우리 축산업은 이 땅에서 그 자취를 감출 것이다. 뻔한 축산대책 내세우며 쓰러져가는 사상누각에 받침대만 받칠 것인가! 온갖 술책으로 현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축산농민, 국민을 우롱하는 장관고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만약 계속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성난 농심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며,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오직 무능한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5.28

축 산 생 산 자 단 체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